

IMT2000, 2005년 34% 차지할 듯

PHS는 출하 감소에 보급률 개선도 난망 ... 3G가 전자상거래 촉진

2005년에는 휴대전화에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EITA(Japan Electronics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의 자동차 전화와 휴대전화, PHS에 대한 2005년까지의 수요를 예측에 따르면, 자동차·휴대전화는 차세대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 규격준거의 단말기가 증가해 2005년에는 가입자수의 34%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PHS는 데이터 통신용 수요는 이어지나 IMT2000 단말기로의 이행으로 출하량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휴대전화는 보급률이 60%를 넘어 당분간 수요신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을 포함한 총수요는 2002년 1조6499억엔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IMT2000을 기준으로 한 제3세대 휴대전화(3G)의 대두로 점차 늘어나 2005년에는 3.0% 증가한 1조8476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G서비스의 인구 커버율은 2003년 90%를 넘어 총 가입자수가 2005년 29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004년에는 거의 전 기종이 카메라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3G의 단말 규격이 국제표준이어서 외국제품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3%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3G에는 NTT DoCoMo의 W-CDMA와 KDDI가 추진하는 MC-CDMA1XEV-DO의 2방식이 있지만 2005년에는 후발 EV-DO 가입자가 우세할 전망이다.

PHS는 1997년 9월 707만명 가입이 피크를 기록했으나, 64/128킬로비트/초의 고속데이터 서비스로 반격을 노리고 있으나 음성이용자의 계약 해지율이 높아 2005년 총 가입자는 510만명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road Hand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3G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EC(Electronic Commerce)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들도 발달이 예상된다.

따라서 3G단말기에 삽입되는 SIM(가입자인식모듈)카드의 고기능화가 예상된다.

Gemplus는 프랑스, 미국 시장에도 이미 진출한 SIM카드 세계최대 생산기업으로 비록 일본은 SIM 도입이 늦었지만 잠재력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반적인 GSM방식 단말기와 다르게 일본의 단말기는 이미 고기능으로 컬러 LCD(Liquid Crystal Display)도 일반적이고 Java프로그램까지 활용하는 것도 있다.

미국, 유럽이 인증과 데이터 통신 기능을 SIM카드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미 단말기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EC를 전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용관리와 품질관리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일본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G단말기의 보급은 카드 판매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02>